

그리스도인 24.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Christian 24. The Christian's salvation is eternally secure.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얻은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요 3:16)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인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할 수 없다. 일시적인 생명이라 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만일 그 생명이 중단되거나 잃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으니, 이 생명을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딤후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얻은 생명을 생각할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둘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they shall never perish, 요 10:28).

여기서 결코(never)라는 말은 강한 부정의 의미가 있어, 그분의 양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약속이 이러하다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주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며 또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말로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함을 말한다.

셋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9)

아버지의 손(Father's hand)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 누구도 그분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넷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 1:5)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우리의 몸이 변화를 말한다. 부활의 순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the power of God)으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다섯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시작한 선한 일(a good work)이 실패되지 않는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빌 1:6)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그 구원의 결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구원은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드러내다가 부활을 통해,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그것을 끝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여섯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요 6:39)

아버지의 뜻(Father's will)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

리는 마지막 날까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일곱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골 3:3)

바울의 말대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그 생명, 감추어진 생명(your life is hid)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여덟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은 일시적이지 않다. 그 사랑이 계속되는 한, 그분의 사랑으로 얻게 된 생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바울은 말했다.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³⁹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시편 23편은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뒤따르게 된다. 주님이 내 목자시라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시 23:6).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24절도 말한다.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다.

시편 37편 28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하셨다. 또 그들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고도 했다(시 37:29).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